

國內 키치패션의 특성과 디자인 연구

徐承美* · 楊淑喜

淑明女子大學校 衣類學科 博士課程*, 淑明女子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Design of Korean Kitsch Fashion

Seung Mi Seo* and Sook Hi Yang

Dr.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Kitsch is one of the various mass-cultural phenomena in the late 20th century, with its own new aesthetic value, 'self-expression' through 'destruction', denying the existing established way of thinking and escaping from the stereotypes or fixed ideas. This is called 'aesthetic inadequac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different preferences between the western and the domestic Kitsch Fashions to investigate the formative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domestic Kitsch Fashion based on substantial data, and to propose the creative Kitsch desig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Kitsch Fashion are marked by amusement, disharmony, epicureanism, satire, and use of imitation.

2. Then, based on theoretic research, this study applies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itsch to the creative design.

According to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for Kitsch Fashion, the Design Concepts are developed in order of Optimism, Multi Form, Decadence Chic, Neo-Naturalism, and Poor Vintage. And the Fabric direction is given in Design Story with sub theme such as Cheerful, Game, Decadence, Environment, and Grunge.

I. 서론

현대인들은 문화적 현상의 '미적 대상' 들을 주관적인 견지에서 가치를 확대하거나 과장하여 초현실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과거에는 '미'에 대해 순수한 현실 자체만으로 문화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만 평가하였으나 현대에는 저속한 문화에 대한 미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¹⁾. 산업혁명 이후 시민사회에 등장한 키치(Kitsch)²⁾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연결하

는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나타났으며 변화된 자극을 원하는 대중들에게 충격적인 모티브로 전개되었다. 산업화된 현대사회의 다양한 대중문화 속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지니며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키치는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파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미적 부적절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키치의 미적 특성들은 현대 패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선례연구가 서구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문화예술에 나타난 키치의 미적 범주와 조형미를 고찰함으로써 국내 키치패션의 조형적 특성과 디자인을 연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로서 현대예술 분야에서 논의되는 키치를 중심으로 키치의 조형미를 살펴보고, 현대복식에 나타난 키치패션을 서구의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의 대표적인 형태를 통해 키치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한 후 국내 패션 흐름 속에 나타나는 키치패션의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실증적인 연구로 국내 키치패션의 미적 가치와 조형적인 특징을 분석하여 키치의 미적 특성을 응용한 '2000 F/W 디자인 기획을 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 키치패션에 대한 조형적인 분석에서는 내셔널브랜드와 디자이너 작품, 거리패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외 국내외 저서와 선행연구 논문³⁾ 등의 문헌을 연구분석 하였다. 시각적인 자료는 90년대를 중심으로 Collezioni, Moda Book, Fashion Show, Harper's Bazaar Korea, Fashion Today, Marie Claire, Elle Korea, Ecole 등 국내외 패션 잡지와 작품집, 브랜드 카다로그를 통해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키치의 개념

서구에서의 키치는 19세기 후반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논의되었으며 20세기 초반에는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일반화되어 하나의 국제적인 공식용어로 예술 전 영역에서 대두되었다⁴⁾. 키치가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60년 무렵, 독일 남부에서 '끓어모오다, 아무렇게나 주워 모오다' 라는 뜻으로, 넓게는 '낡은 가구를 주워 모아 새로운 가구를 만든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키치라는 말속에는 원래 '윤리적으로 부정함', '진품이 아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그 의미의 범위가 확장되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⁵⁾. 즉 키치(Kitsch)는 저속한 작품, 천박한 잡동사니의 예술 쓰레기 혹은 문학 쓰레기라는 허위예술

로서 대중적 취향에 부합하는 질적으로 저속하고 값싼 예술작품을 의미한다.

디자인 분야에서의 키치는 19세기 후반 대중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대중들이 한정된 경제력으로 상대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서 발생한 '모조품'을 가리키는 단어로, 디자인 평가에서 기능주의 적인 모던 디자인의 경향을 '굿(Good)' 이라고 한다면 키치는 '배드(Bad)'를 의미하는 대립된 개념으로 나타난다⁶⁾. 또한 패션 분야에서의 키치 이미지는 고상한 취미의 품위 있는 패션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아를데텐 전통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으로 자극적이고 저속한 색채와 산만하고 값싼 소재 등을 사용하여 현대문명의 나태함을 충격적인 자기표현으로 나타낸다.

현대 사회의 문명은 극도로 자기 의식적이며 금욕적인 모더니즘 예술을 낳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매우 직감적이며 오락을 추구하는 가벼운 예술적 생산물을 만들어 낸다. 사실상 이것은 문명의 중심을 이루는 대중들, 특히 중산층들의 텅 빈 미의식 내지는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에 부응하는 현상으로, 막강한 대량생산의 산업적 매개체를 통해 감성체계인 키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키치는 예술과 대중사이에서 그 개념이 존재하며, 19세기 후반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여 대중들의 소비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다차원적인 현상들을 함축하는 문화의 한 범주로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우리의 문화 현실과 관련하여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 현대예술에 표현된 키치

현대예술의 흐름 속에서 키치는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향유하는 이중적인 부정으로 예술과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대중적인 허위예술이다. 대중들은 키치를 통하여 예술을 쉽게 체험하게 되며 따라서 키치와 예술은 필연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게 된다⁷⁾. 즉 키치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예술영역 속에 적용되어 키치적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넓은 계층에 기조를 두면서 예술의 품위를 격하시키는 동시에 부정적 가치를 담보하는 미적 산물로서 키치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가 예술에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당시 고급예술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던 통속적 예술인 키치의 미적 부 적절성과 저속한 취향을 의식적으로 수용하여 일상적인 오브제에 대한 미적 환기와 더불어 전통적 미적 위계질서를 파괴하고자 하였다⁹⁾. 아브라함 몰르(A. Moles)의 키치 심리학에서 보면 '초현실주의적 유형은 사물이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장소로부터 떨어져 나와 다차원적인 상황과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완수하며, 키치는 거시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초현실주의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⁹⁾. 이와 같이 논리적인 사실을 거부하고 사실적인 현상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세계와 인간의 내부세계 사이의 부자연스런 경계선을 없애 새롭고 명백한 경험의 영역을 추구하는 초현실주의 영향력은¹⁰⁾ 문학, 미술, 음악, 사진, 영화, 패션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전개되었으며, 키치의 통속적이며 저속한 취향의 부적절한 무질서에 대해 초현실주의자들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다차원적인 기법으로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또한 꿈이나 환상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무의식의 영역 속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순수한 정신활동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현실과 꿈의 세계에 대한 인간정신의 해방을 나쁜 취미의 키치적인 역설적 양식으로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팝 아트(Pop Art)는 고도로 산업화된 서구 대중사회의 환경을 포용하였던 미술사조로, 키치의 대중적이며 통속적인 허위예술의 미적 특성을 고유한 하나의 예술영역으로 형성하여 인공적인 요소의 현실을 아이러니하게 풍자적으로 해석하였다. 대중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팝 아트의 등장으로 키치의 미적 가치는 고급예술과 저급예술의 경계를 떠나 대중예술로 주목을 받았으며 일상의 영역에서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대중 미학으로 전개되었다. 팝 아트의 원천은 대중문화이며 대중 소비자사회의 요소를 주제로 한 상업적이며 일상적인 도시환경을 다양한 오브제(object)와 대중적인 이미지로 생생하게 묘사한다(그림 1). 이것은 전통적 예술에서 소외되었던 일상적 사물들에 대한 관심과 의미부여로 그 사물이 형성한 작은 예술적인 환



<그림 1>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Richard Hamilton 1956, Pop Art, P.26.

경 속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포착하며, 특히 회화중심의 미술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사물들을 오브제 자체로 작품화하는 아이러니컬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그 당시 물질문명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와 깊이 연관되었던 팝 아트는 간결한 형태와 다양한 색상으로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환희를 느끼게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키치의 기능인 기쁨과 즐거움에 비유할 수 있다¹¹⁾. 팝 아트는 심미적 균형미와 귀족적, 엘리트적인 세련미를 중시하는 종래의 순수미술에 대한 반발로 당시 파격적인 도전을 찾고 있던 청년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순수예술과 귀족예술의 조형 양식을 거부하는 키치적인 요소의 성격을 수용하여 새로운 미적 가치로 시각적인 감각을 변화시킨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20세기 후반 자본주의 문화의 다양한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대중매체 등의 문화현상 속에서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차이를 줄이고 문화적 다원주의와 대중적 절충주의, 가치론적 상대주의에서 공론을 지향한다¹²⁾. 현대사회는 자신의 과거를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확고한 정체도, 깊이, 주제도 없는 역사의식의 쇠퇴로 인해 포스트모더

니즘은 전통과 혁신, 보존과 갱신, 대중문화와 고급예술 사이에 있는 긴장된 분야에서 작동되고 있다. 즉 이것은 진보 대 반동, 좌익 대 우익, 현재 대 과거, 모더니즘 대 현실주의, 추상 대 표상, 권위주의 대 키치와 같은 범주들로 더 이상 파악될 수 없는 긴장의 과정인 것이다¹³⁾. 새로운 미학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중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은유, 장식, 다양한 색채 등의 요소를 사용하며, 기존의 엘리트 중심적인 예술과 미적 위계질서에서 탈피하여 전위예술의 고립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다양한 예술작품을 대중들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모든 인위적인 산물들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기호로 보며 이런 기호의 기능이 수행되는 조건과 상황에 의거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전개된다¹⁴⁾. 이러한 포스트모던 시대에 예술과 대중문화의 동질화라는 경향은 모더니즘 예술에서 소외되었던 일상성과 주변 문화적인 요소들이 예술의 중심영역에 수용되는 것으로, 과거에는 저급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낙서, 풍자화, 만화, 캐리커처, 광고 등이 미술영역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로 부각되어 대중적 키치미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¹⁵⁾.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본적으로는 키치의 문화이기 보다 키치의 본질을 파악하고 심도 있게 관찰하는 문화로서¹⁶⁾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가 키치를 거부하면서 고상함과 난해함만을 추구하였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키치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예술과 일상생활의 구분을 없애 더욱 대중적이고 모방적인 키치 미술을 옹호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적 대중주의(aesthetic populism)는 고급미술의 측면에서 문화적 키치화 현상에 대한 반응이며, 키치가 고급예술을 차용하고 인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체물을 제공하려 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키치가 지배적인 현상으로 되어버린 현재를 상기시켜 키치적 욕구를 불가피한 욕구로 수용하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시도한다¹⁷⁾. 이와 같이 현대 예술에 표현된 키치의 미적 특성은 비합리적 조형성과 절충주의적 양식을 통해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표현과 소외된 인간성 회복의 메시지를 나타내며,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환경에 살고있는 현대인들은 대중 문화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는 키치적 성향 속에서 일시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3. 키치의 조형미

키치는 대중과 거리를 두는 '순수예술'과는 달리 대중과 함께 하는 예술로써, 전위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도 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독창성이 충분할 정도로 희석화 된다. 본래의 창조 형태를 희석화 시키는 것, 예술의 독창성을 희석화 시키는 것 등의 이러한 사실들이 모든 현상 형태를 키치화 시킨다. 또한 몰르(A. Moles)는 키치를 인간과 사물의 관계방식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관계에서의 키치는 하나의 미적 양식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¹⁸⁾. 즉 키치는 일상생활의 영역 안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지니며, 산업사회와 대중의 취향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예술로서 쾌락과 기만적 성격의 미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키치의 조형미는 과잉장식성, 미적 부적절성, 쾌락주의, 자기과시, 기능장애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과잉장식은 자본주의로 인한 대량 소비사회에서 단순함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잠재의식 속에 억제되었던 욕구의 표출로서 과도한 장식과 키치적 모든 이미지를 반영하여 단순함을 거부한다. 이러한 과잉장식성은 일상생활에서의 무료함을 벗어나 환상적인 공감을 제공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 여백에 남김없이 모든 이미지를 첨가하여 대중들의 시각을 환상 속에 빠져들게 한다. 저속하고 단정치 못하며 싸구려 같은 키치의 미적 요소는 부가적인 장식에 대한 무질서하고 현란한 느낌의 과장된 형태로 누적되어 품위를 격하시키며 감각을 마비시킨다(그림 2).

미적 부적절성은 재료, 형태, 크기 등의 형식적 특질이 부적합한 단일대상에서 볼 수 있으며 어떤 미적 대상의 결합이나 배열의 오류와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면 절대 키치적이지 않은 대상들도 그 결합이나 배열에 관련해 키치의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단순히 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진정한 예술과 미적 의미를 부여한 다양한 사물의 비예술 사이에는 미적 부적절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무수한 단계가 있다¹⁹⁾. 즉 의도적인 부조화적 요소나 무질서한 형태의 변형들은 불균형적인 왜곡을 통해 키치의 미적 특성을 내포한다(그림 3).

쾌락주의의 경우 제프 쿤스(Jeff Koons)는 <위쪽의 이오나 (Iona on top)>라는 선정적인 작품을 통해 현대사회의 성적 쾌락주의와 감정이 배제된 육체, 상품화된 성을 풍자하고 있다. 즉 키치는 쉽게 싫증나게 하는 달콤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과 구분되며, 이러한 키치의 달콤한 끈적거림은 예술의 특징인 거리감과 대립되어 성적인 욕구를 일으키기도 한다²⁰⁾. 키치는 지극히 환각적일 수 있으며 지루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기세계 속에 절저하게 빠져드는 쾌락적 공상으로, 재미와 흥분을 통해 공허한 공간을 키치적인 성향으로 재구성한다(그림 4).

키치는 그 향수자로 하여금 자기과시에 빠져들게 한다. 이러한 기만성은 대부분 현실의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생활양식을 모방함으로써 고급문화에 대한 대리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격이 깊게 내재되며, 널리 확산되는 유명한 화가의 복제품들은 문화적 알리바이를 위해 사들이는 키치의 소비자들에게 진품의

위안과 자기과시를 제공한다²¹⁾. 즉 키치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모조품과 같은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으며 모든 대상을 키치로 보는 키치인간은 오히려 진품도 가짜로 인식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게 된다(그림 5).

키치대상의 기능장애는 상호간에 아무런 관계없는 기능들이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며 결합하여 불필요한 여러 가지의 키치적 오브제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것은 종교적 이미지를 내포하며 본래의 기능을 희석시킨다. 즉 키치적 요소인 일상적인 오브제나 낡은 골동품, 값싸며 유지한 위조품들이 미완성된 느낌으로 결합되어 서로간의 영역을 무시한 키치적 기능장애를 일으킨다(그림 6).



<그림 2> Mementoes of holiday, Kitch in Sync, 1991, p.36.



<그림 3> Lobster phone, Salvador Dalí 1936, Kitch in Sync, p.90.



<그림 4> Table, Allen Jones 1969, Pop Art, P.30.



<그림 5> Mona Lisa, J.C. de Castelbajac, 패션디자인 발상 트레이닝1, p.60.



<그림 6> Jean-Paul Gaultier, 패션디자인 발상 트레이닝2, p.136.

Ⅲ. 국내 키치패션의 미적 특성

1. 해외 키치패션의 유형

청소년들은 기존 사회에 대한 반발과 현실에 대한 회피로 그들만의 독특한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을 창조하였으며, 기존의 복식 개념과는 다른 파격적이며 이단적인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키치패션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실증적 배경이 되었으며, 이러한 스타일들은 대중적인 하위문화 속에 표현되어 그들이 의도하는 감정을 키치라는 오브제를 통해 기존의 가치체계와 미적 질서를 벗어나 자유로운 감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키치패션의 유형은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청소년 하위문화 패션의 흐름 속에서 발전하여 팝아트 룩, 히피 룩, 펑크 룩 등으로 나타났다.

팝아트 룩(Pop Art Look)은 대중적이며 통속적인 키치의 미적 특성을 고유한 하나의 예술영역으로 형성하고 기존의 관습과 패션의 미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켜 단순한 구성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대중적인 취향으로 전개되었다. 1960년대는 대중 문화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던 젊은 세대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청년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중예술은 고급예술과 저급예술간의 구분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시기에 팝아트 룩은 즉흥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전위감각을 표현하는 대중패션으로, 육체를 오브제로 여기고 금속, 아크릴, 플라스틱, 비닐 등을 의복에 도입하여 파격적인 시각효과를 주었으며, 키치의 유희적이며 통속적인 이미지를 극적으로 표현하여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고 새로움을 갈구하는 그들의 욕망을 복식의 혁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팝아트적 키치패션은 대중사회의 통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량 소비사회의 상업문화 속에서 무한한 소재의 원천을 찾아내어 현대사회의 가장 대중적인 이미지를 희화시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대중적 미학이 잘 나타나는 팝아트 적인 패션은 기존 패션에 도전하는 이색적인 혼합과 도치, 만화나 낙서기법, 식상한 예술품이나 익숙한 이미지의 차용, 일상적인 오브제 사용 등²⁹⁾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새로운 인체미학의 조형과 복식형태를 추상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

술성 자체의 의미보다는 대중예술의 매체로서 팝아트 룩의 키치적 유희성을 표현한다. 이는 키치패션의 대중화 현상과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팝아트 룩은 종래의 세련되고 우아한 복식형태에 대한 반항이고 도전이며, 유희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키치적인 요소를 대중 취향에 기반 하여 독특한 미적 가치로 표현한 대중예술이라 할 수 있다.

히피 룩(Hippie Look)은 60년대 말 중산층의 지식계급과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실존주의적 가치와 허무주의를 기초로 기존사회에 대한 저항의 측면에서 인류와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아실현에 대한 인간성 회복을 중시하였다. 히피 문화는 의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켜 이전의 유행 흐름을 역전해 상향 전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²⁹⁾, 히피 룩의 유행이 점차 확대되면서 패션감각은 더욱 개성이 뚜렷한 경향으로 발전되었다. 유럽의 낭만적인 페전트 룩(Peasant Look)이나 긴 머리 스타일과 나체, 그리고 화장하지 않은 얼굴은 자연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을 표현하였으며 너덜거리는 오래된 의복과 찢어진 블루진, 샌들이나 맨발 등은 가난을 상징하였는데, 이런 경향은 중고 스타일의 낡고 촌스러운 빈곤의 미학으로 이후 그랜지 룩에서 더욱 가시화 되었으며 현대 패션에서 키치가 미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²⁴⁾. 이러한 히피들의 시대착오적인 중고 스타일은 기성세대의 진지함과 고상함에 대한 과장이나 유머 등으로 기존의 복식관례를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세련됨과 자유로운 감성에 의한 낙관주의를 나타낸다²⁶⁾. 또한 그랜지 룩(Grunge Look)은 다양한 레이어드 기법으로 이질적인 소재의 혼합과 패치워크 기법 등을 사용하여 히피들의 초라한 멋을 감각적으로 즐겼으며, 이후 하이패션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어 빈티지 룩(Vintage Look)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키치패션에서의 혼성모방(pastiche)이나 오래된 듯한 이미지의 표현방법은 히피 룩과 그랜지 룩에서 볼 수 있는 중고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으로 빈곤의 이미지는 반 권위주의와 쾌락주의, 부에 대한 경멸의 표현으로 나타나며 현대 패션에서도 다양한 키치적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펑크 룩(Punk Look)은 기존의 전통과 관념을 거부

하며 새로운 질서를 위한 파괴적인 행위로, 특히 키치적인 저속하고 값싼 패션을 선호하여 정상적인 의복의 형태를 파괴하는 비속하고 불쾌한 공격적인 스타일로 나타난다. 그들의 스타일은 무언의 의사를 나타내며 최대한의 시선집중으로 기성세대에게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하여 그들만의 집단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펑크 록은 여러 가지 스타일을 혼합하여 자기표현을 독창적으로 창조하며 소속감을 위해 문자나 기호를 여러 곳에 표시하여 그들의 저항감을 나타내었다. 저속하고 과다하게 장식된 가죽 점퍼와 고무나 플라스틱 바지, 찢어지거나 구멍난 의복, 가죽끈, 지퍼장식과 메탈 징, 체인 등은 기성세대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펑크 록의 충격적인 스타일은 기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단정치 못한 복잡 미묘함 속에서의 펑크 적인 키치 요소는 파격적인 형태로 의복에 무질서하게 표현되어 일부 젊은이들의 거리 패션(Street Fashion)이 역으로 하이 패션에 도입되어 대중유행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²⁶⁾. 이러한 펑크적 키치패션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과시적인 창조성이며, 형식과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펑크 록의 획기적인 디자인 요소들은 현대 패션에 키치의 커다란 양상을 심어 주었다. 파괴적이며 부조화적인 표현이나 저속하고 값싼 일상적인 사물들을 오브제로 활용하는 키치 스타일은 펑크 록에서 나타나는 비속하고 불쾌하며 공격적인 스타일로, 키치패션에서는 이들의 통속적이며 유치한 특성들을 표현하여 반 미학의 이미지를 추구한다.

2. 국내 패션에 나타난 키치패션

1) 발생배경

20세기 후반, 국내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급속한 발전을 하였으며 고도의 과학 기술과 정보화 사회는 인간의 생활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 시켜 집단 정체성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게 되었다. 또한 서구 문화의 개방화와 더불어 소득의 증가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한 소비지출은 확대되어 국내 패션시장은 개성과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그 결과 일상의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기존의 고정관념을 무시한 충격적이고 유희적이며 저속한 취향의 키치패션이 등장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경제적 기반 확립으로 인해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사회적인 안정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기 표현이 분명하고 개방적이며 남을 의식하지 않는 적극적인 감성과 쾌락적인 소비성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정체성을 원하며 의복이나 행동, 취미생활을 통해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들만의 기호인 청소년 문화를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은 영상세대로 대중매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대중문화는 패션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대중문화는 외국문화를 수입하거나 국내 유명 스타일의 문화를 그대로 모방하여 흡수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키치의 대중화는 이러한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청소년들에 의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지배적인 매스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대중문화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며 그 문화를 선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²⁷⁾. 최근 청소년들에 의한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의 유행은 적극적이며 개성 있는 패션감각을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하여 대중화시킨 것으로, 이것은 기존의 패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키치패션의 발생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1993년 국내 패션경향은 히피 록의 부활로 찢어진 청바지와 과감한 디자인의 배꼽티(tank top)가 유행하였으며²⁸⁾, 94년에는 시스루 소재인 란제리 룩(Lingerie Look)의 등장으로 속옷과 겉옷의 개념이 해체되어 과감한 노출을 시도하였다. 96년에 등장한 신세대 가수 H.O.T는 유치한 색상과 과장된 형태의 싸구려 인조모피 코트, 병어리 장갑, 귀여운 모자, 커다란 가방, 신발 등을 착용하여 스타를 자신의 이상으로 여기는 일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모방되었으며, 이러한 유치하고 값싼 모조품들은 복제화되어 대중들에게도 널리 유행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중 스타의 패션을 모방하는 청소년들은 오늘날 키치패션의 대중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들은 값싸고 촌스러우며 유머스러운 어린아이의 소모품에 매력을 느끼며 자신의 개성 가꾸기에 열중하게 된다. 97년 패션경향은 로맨틱시즘의 영향으로 비비드(Vivid) 컬러의 꽃무늬가 유행하였으며(그림 7) 키치적인 유머감각의 프린트는 하이패션의 영역에까지 전달되었다. 또한 한 패션 백화점은 기획 테마를 '키치 세대'로 정하고 도시 속의 신세대를 트렌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하여 백화점을 상품 공간이면서 유희 공간으로 기획하였는데, 이러한 테마 기획은 우리에게 복잡한 현실을 탈피하여 키치적인 유머감각으로 휴식과 즐거움 그리고 환상적인 만족을 제공하게 된다²⁹⁾.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패션에 즐거움을 주는 요소로 생각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조화를 창출하고자 한다. 98년에는 히피와 펑크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다소 고급스런 취향의 빈티지 룩(Vintage Look)이 등장하여 낡고 촌스러운 이미지의 중고 스타일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과거에 유행하던 패션들을 다시 회고하는 듯한 복고풍 패션과 페미닌 스타일(Feminine Style)의 로리타 룩(Lolita Look)은 다음해까지 이어졌으며, 귀엽고 화사한 장식의 프릴과 퍼프소매, 작은 꽃



<그림 7> Vivid Color의 꽃무늬, Queen, 1997.9, p.152.

무늬 등의 소녀풍 패션은 유희적 요소의 키치패션으로 신세대들에게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내 패션에 나타난 키치패션은 유희적인 특성과 파격적인 형식, 전위적인 왜곡과 미적 부적절성 등의 키치적 이미지를 전혀 예상치 못한 스타일로 유머스럽게 미스 매치(miss match)하여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신세대들은 유머스런 펑키(funky) 스타일의 패션이나 스파덱스 셔츠, 커다란 힙합 바지나 찢어진 청바지, 오래된 듯한 낡은 스웨터, 양증맞은 액세서리, 촌스러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값싼 인조보석의 머리핀, 부풀린 퍼머머리, 커다란 운동화, 원색의 선글래스 등을 즐겁게 코디네이트 하면서 대중적인 키치패션으로 영캐주얼 룩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2) 조형적 특성

국내에 나타난 키치패션의 미적 특성들은 기존 복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켜 새로운 개념의 형태로 창조되었으며, 비합리적인 조형성과 절충주의적 양식을 통해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을 키치패션의 미적 부적절성으로 표현하였다. 현재 다원화된 대중사회에서 복잡한 양상의 대중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키치는 자유로운 정서를 통해 미적 특성을 통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키치패션은 국내의 패션문화 속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1) 유희성

유희성은 심오한 철학보다는 쉽게 웃고 잊을 수 있는 유머와 재치를 통해, 균형과 조화의 정체된 아름다움보다는 새롭고 파격적인 생동감으로 인간성 회복을 표현한다. 이는 유아기와 같은 순진무구한 시기의 특성과도 같으며 내면의 상태를 자유롭게 표현한 무의식의 상태와도 유사하다³⁰⁾. 키치패션에서의 유희성은 유아적이고 팝아트 적인 유머와 즐거움을 단순하면서 자유로운 키치 감각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경향은 가볍고 즐거운 유희적인 감정들이 서로 혼합되어 익살스런 파괴와 새로움을 창조하는 유희적인 특성으로 전개된다. 즉 유희성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간의 미적 감정을 표현하며, 특히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융합시키는 표현기법으로 나타난다.

첫째, 유아적인 요소의 유희성은 어린 시절의 즐거웠던 추억과 동화적인 환상을 통해 현실로부터 자유를 누리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유희적인 쾌락과 천진난만한 순수성을 회상시켜 준다. 메리 Quant(Mary Quant)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fun to wear' 패션을 디자인하는 정열을 주었다고 하였는데³¹⁾ 이것은 프로이드(Freud)가 유희에 대해 '유아기의 놀이적 마음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어른의 해방감'³²⁾ 이라 정의하듯이 '유희'는 순진한 유아기의 감성과 유사하며 인간 내면의 자유분방한 무의식의 세계와도 같다. 이러한 유아적인 키치패션은 자유롭고 가슴 설레는 어린 시절의 순수성과 동화적인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장난스런 유희와 천진난만함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마치 인형 옷과 같은 짧은 프릴 스커트에 앙증맞은 핸드백, 단순한 모티브의 꽃과 나비 그리고 과일 등의 애플리케이션, 퍼프 소매와 스모킹 장식에서 느껴지는 어린 시절의 향수, 귀여운 곰 인형, 동화책에서 금방 튀어나온 듯한 장난스런 동물, 예쁜 유아용 털모자³³⁾ 등은 유아적인 키치패션의 대표적인 스타일들이다(그림 8).

둘째, 팝아트 적인 요소의 유희성은 대중 소비문화에서 시각적인 모방을 가져왔으며 풍부한 상상력으로 유희적인 요소를 희화시켜 키치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팝아트 적 키치패션은 어린 시절의 순진무구함과 웃음을 자아내는 유아스런 패션으로 나타나며³⁴⁾, 이색적인 혼합과 도치³⁵⁾, 오브제의 표현³⁶⁾, 과잉장식, 만화나 그래피티(낙서화), 자극적인 색채의 과다사용, 싸구려 액세서리, 예술작품의 패러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적인 조화나 미적 조화를 무시한 키치적 양상의 유희성을 표현한다. 노승은은 검정가죽 원피스에 네크라인에 자극적인 레드 컬러의 커다란 구슬장식을 과장되게 연출하여 팝아트 적인 유희성을 미적 부조화로 표현하였는데(그림 9), 이러한 유희성에서 오는 미적 쾌감은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본질을 추구하며 심미적이고 비 예술적인 완성으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2) 부조화성

'키치는 언제나 목표로부터 약간 빗나간 곳을 겨냥한다' 라고 말한 아브라함 몰르(Abraham Moles)의 말처럼 키치에는 크기의 불균형, 차원의 위화 같은 것이 존재한다. 키치의 부조화는 이처럼 재료나 형태, 크기 등의 형식적 특징이 부적합한 단일대상들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미적 대상의 결합이나 배열과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개별적으로는 절대로 키치적이지 않은 대상들도 그 결합이나 배열과 관련해 키치의



〈그림 8〉 유아적 키치패션, 이경원, Fashion Today, 1995.7, p.91.



〈그림 9〉 커다란 구슬장식의 팝아트 룩, 노승은, Marie Claire, 1998.8. p.125.



〈그림 10〉 착장의 오류, 김태라, Harper's Bazaar Korea, 1999.7.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³⁷⁾. 이와 같이 키치패션에서의 부조화성은 복식의 형태가 인체로부터 자유로와 지기 위해 전통적인 개념의 비례와 조화의 균형을 의도적으로 파괴하여 의복에 대한 미학적 관념을 미적 부 적절성으로 표현하며, 기존의 복식 관념과는 다른 새로운 감각의 형태와 개념이 창조되어 의도적인 변형과 파괴로써 전위적인 감각을 표현한다. 이러한 시도는 억압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고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난 창조적인 기법으로 부조화적인 형태를 자유롭게 재구성한다.

첫째, 신체와의 부조화는 전통적인 복식 형태의 관념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크게 혹은 매우 작게 변형시켜 미학적인 개념과 상반된 새로운 시각적인 불일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키치적인 부조화를 표현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정체성을 무질서한 의복의 착장 형태로 보여주는 것으로, 기능이 없는 타이트한 재킷이나 커다란 슬랙스, 지나치게 작은 블라우스, 신체의 비례와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코트, 속옷이 보일 정도로 짧은 스커트, 과장된 디테일 등 의복의 기능에 부적합한 요소들이 유머러스하게 연출되어 신체적인 부조화의 미적 조형성을 추구한다.

둘째, 배열과 착장의 오류로 인해 키치적인 미적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의복의 각 부분을 의도적으로 어리석게 배치하여 유머와 신선한 충격을 제시한다. 즉 평범한 아이템도 착장의 혼란으로 나타나는 부 적절성은 키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무질서는 비상식성이 부각되어 저속한 키치효과를 나타낸다. 겹옷과 속옷의 도치, 상하 위치 변경, 내부와 외부의 해체, 이질적인 소재의 부조화 등 비정상적인 착장 방법과 과시적인 위반은 합리적인 관념에 위배되는 시각적인 불일치로 새로운 키치패션의 미학을 제시한다. 진태옥은 재킷의 칼라가 뒤쪽에 배치되어 유머스런 키치효과를 연출하는 오류된 배열의 키치패션을 선보였으며³⁸⁾, 김태각은 의복의 착장형태를 파괴하여 키치미학을 충격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10).

셋째, 왜곡과 불균형성은 기존 복식 디자인의 원리를 무시하고 균형체계가 파괴된 모순적인 디자인으로 형태에 새로운 생동감과 변화를 주어 비대칭 균형의 미묘한 조화를 구성한다. 키치패션에서의 불균형성은

복식의 외적 표현에서 조화의 균형과 비율을 파괴하여 인체의 변형을 시도하며, 이러한 인위적인 성형은 의복의 구조를 해체하여 파격적인 긴장감으로 고정관념을 이탈한다. 즉, 분해적인 표현과 비구축적인 실루엣, 탈구성적인 형태들은 키치적인 부조화와 해체주의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미학으로 창조된다. 이신우는 왜곡된 커팅라인의 미완성된 디테일이 돋보이는 부조화적인 실루엣을 '91 A/W Collection에서 선보였으며, 박춘무는 한쪽 소매의 비대칭적인 커팅과 언바란스한 햄라인(hem line)이 모순적인 키치패션을 선보이기도 하였다³⁹⁾.

(3) 쾌락성

칼리네스쿠(Matei Calinescu)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키치는 '근대의 일상적 삶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쾌의 문제'로 보았으며, 키치인간이 추구하는 쾌는 철두철미한 오락적인 것이며 부적절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흥분을 만끽하는 노력 없는 향유라 하였다⁴⁰⁾. 따라서 키치패션의 쾌락성은 인간내면의 정신세계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자신을 자극하려는 단순한 즐거움으로 키치의 미적 특성을 통해 극단적인 노출로 대담하게 표현한다.

첫째, 관능적인 에로티시즘은 인체의 노출을 통해 성 본능의 표출만이 아니라 아름답고 신비로운 인체의 특정부위를 노출과 은폐, 강조와 암시로 표현한다. 키치패션에서의 노골적인 노출은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여성의 성적부위인 가슴과 허벅지의 노출, 왜곡된 신체의 과장된 표현, 선정적인 장식과 비치는 소재사용, 속옷의 겹옷 화 등 극단적인 자극으로 표현되어 관능적이며 퇴폐적인 쾌락주의를 강조한다. 개인적 은밀함의 상징인 속옷의 노출은 과시적 에로티시즘의 하나인데, 이신우는 '95 S/S Collection에서 검정색 쉬폰의 여성 속옷을 겹옷 화하여 의도적인 노출로 키치패션의 저속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그림 11), 노승은은 선정적인 가슴의 노출로 여성의 아름다운 관능미를 과감하게 표현하였다⁴¹⁾.

둘째, 성의 양면화는 여성적인 이미지와 남성적인 이미지의 성의 혼돈에서 오는 쾌락적인 유희성을 의복을 통해 양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성의 혼란

에서 오는 상징적인 의미를 복식에 도입시켜 양성적인 디자인으로 쾌락주의를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경향은 키치적인 쾌락성의 표현으로 성적인 만족감의 페티시즘(Fetishism)과 이성을 유혹하는 에로티시즘(Eroticism)을 동반하며 감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쾌락적인 인간상을 추구한다. 장광효는 남자모델에게 어깨가 노출된 니트웨어와 프린트 스커트를 착용시켜 남성의 이미지가 여성화된 성의 양면화로 유희적인 쾌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⁴²⁾, 송지오는 신체에 밀착된 타이트한 가죽 원피스를 지퍼로 오픈 함으로써 성적구속의 해방이라는 쾌락적인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⁴³⁾.

(4) 풍자성

풍자는 표현대상의 허위와 거짓을 폭로하고 비판하기 위해 그 대상을 과장하고 희화시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⁴⁴⁾, 이러한 풍자적인 키치패션은 단순한 유머나 조소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상황, 사회적 모순, 종교적 비판, 이국적 향수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현대 사회 속에서 풍자적인 표현으로 비판한다. 즉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해학적이며 상징적인 방법으로 비판하여 카타르시스적 교훈을 전해주며, 그래피티(낙서화)와 패러디, 만화 등의 기법으로 표현된다.

첫째, 정치적 풍자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ideology)와 전쟁, 기아, 인종차별 등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인 문구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풍자한다. 이러한 저항정신의 메시지는 기존의 미적 규범을 해체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매개체로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휴머니즘을 반영한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유행하였던 밀리터리 룩은 80년대 정치적 풍자를 위해 중요한 표현수단이 되었으며, '93-94 F/W Collection에서는 그런지 룩과 결합하여 히피적인 밀리터리룩으로 부활되어 정치적 권위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둘째, 사회적 풍자는 소비향락 사회에 대한 물질만능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문제를 풍자적으로 표현하며, 소비제품의 과시적 광고나 사회적인 이슈, 환경문제, 마약과 에이즈퇴치 등의 메시지를 오브제 화하여 그래피티(graffiti) 기법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박

형미는 '98. 7 국제복식학회 의상전에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슈를 오브제 화하여 드레스의 밑단부분에 풍자적인 메시지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풍자적 키치패션은 현대사회의 물질숭배와 소비향락주의를 유희적이며 아이러니컬하게 표현하여 인간의 소외를 역설적으로 풍자하기도 한다.

셋째, 종교적 풍자는 현실과 이상, 종교적인 신비와 절대성 등 인간의 세속적인 위선과 종교적인 순수성을 물질문명의 현대화 속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풍자하여 숭고한 종교적인 의미를 실현한다. 즉 종교적인 성물이나 성직자의 의복, 종교화, 무채색의 공허감 등을 소재로 물질 만능시대에 세속화된 종교를 쾌락적인 현대성과 절충하여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넷째, 이국적, 향수적 풍자는 도시인들의 내면에 있는 낭만적인 정서로서, 자연에 대한 향수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역사적인 향수성은 현대의 모더니즘적 스타일의 획일성과 단순성에서 탈피하여 과거와 현대를 중점시키는 방법으로 복고적 향수에 대한 대중적 기호를 반영한다. 이국적인 풍경과 목가적인 향수는 정서적인 모티브의 조합에 의해 에스닉 룩으로 표현되며 동양과 서양, 도시와 전원 등의 문화적인 양식은 이러한 스타일을 통해 토속적인 향수를 자극한다. 김선자와 이영희는 '97 F/W Collection에서 한국적인 향수의 풍자성을 시도하였는데, 한복의 옷고름을 오브제 화하여 코트의 여밈으로 표현하거나 한복저고리를 풍자적으로 차용하여 재킷으로 연출해 토속적인 이미지의 키치패션을 시도하였다(그림 12).

(5) 모조품 활용성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는 환경오염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회복으로 재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90년대에는 중고 스타일의 네오 히피 룩과 그런지 룩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 외 생활 속의 다양한 모조품인 키치 오브제를 활용하여 자원의 순환을 유도하였으며 키치패션의 빈곤미학을 그런지 패션(Grunge Fashion)의 소박한 휴머니티로 연출하였다. 이러한 키치패션의 싸구려 모조품들은 키치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며, 오히려 현대패션에서 값싼



<그림 11> 속옷의 겹옷화,
이신우, Fashion Show,
1995 S/S, p.267.



<그림 12> 저고리 옷고름의 오브제,
김선자, Elle Korea,
1997.10. p.30.



<그림 13> 넥타이의 키치 오브제,
이신우, Fashion Today,
1996.10, p.114.



<그림 14> CASCADE 광고,
Ecole, 1999.7.

저속함을 즐기게 됨에 따라 키치적인 모조품들은 새로운 멋을 창조하는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첫째, 중고 스타일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처럼 전파되었으며 격식을 거부하는 옷차림에서는 지저분하고 추한 것도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었다. 즉 낡고 촌스러운 옷을 겹쳐 입거나 천으로 둘러 빈곤의 미학을 연출하였는데, 값싼 소재인 인조 모피와 비닐 등은 키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들로 특히 낡은 천을 이용한 패치워크(patchwork)는 핸드메이드(handmade)의 구성미가 돋보이며, 의도적인 페이딩(fading) 기법과 프링징(fringing) 기법 등은 직물을 낡아 보이게 하여 빈곤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또한 낡고 퇴색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찢기와 구멍 뚫기는 가난과 허무감, 파괴적이고 자학적인 의미가 내포된다. Mojo의 '98 S/S 광고는 마치 오래된 담요를 두른 것과 같은 효과의 미완성된 스타일로 거즈소재의 구겨진 스커트는 밑단을 처리하지 않고 툭툭 감아 입은 것 같은 형태이며, 한쪽만 달린 소매는 마무리되지 않은 해체적인 느낌의 키치패션이다. 또한 배수정은 '98. 7 국제복식학회 의상전에서 낡은 블루진 조각을 끝마무

리하지 않은 패치워크 드레스를 시접처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봉제하여 시접의 노출로 인한 분해적인 키치미학을 표현하였다.

둘째, 키치 오브제는 비 예술적이거나 일상적인 소재를 오브제 화하여 통속적이며 해학적인 이미지의 키치 요소를 복식에 도입하는 것으로, 정크 아트(Junk Art)의 앳상블라췌(asssemblage)와 콜라췌(collage) 기법들이 응용된다. 자원에 대한 재활용으로 낡고 오래된 듯한 소재나 폐품류, 신문지, 플라스틱, 음료수캔, 그밖에 모조 장신구나 골동품 등은 기능장애의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키치 오브제는 천박한 취향을 드러내어 상상력을 통한 유머로서 유희적으로 본래의 기능가치를 희석한다. 이신우는 '98 F/W Collection에서 인체의 곡선과 유사한 유행이 지난 낡은 넥타이를 키치 오브제화 하여 빈곤의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그림 13), CASCADE 광고에서는 비스켓으로 제작된 탱크 톱(tank top)을 착용하여 키치의 해학적인 요소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다(그림 14).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 키치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키치의 조형미와 내적 의미, 외적 형식으로 비교하여 정리하였다(표 1).

〈표 1〉 국내 키치패션의 조형적 특성과 키치의 조형미

미적범주 \ 조형성	유희성	부조화성	쾌락성	풍자성	모조품활용성
내적 의미	유아적 유희성 팝아트적 유희성	신체와의 부조화 배열과 착장 오류 왜곡과 불균형성	관능적 에로티시즘 성의 양면화	정치적 풍자 사회적 풍자 종교적 풍자 이국적 풍자	중고 스타일 키치 오브제
외적 형식	유치증 과잉 장식	부 적절성 무질서	성적부위 노출 퇴폐적	해학성 상징성	빈곤 미학 미완성
키치의 조형미	과잉 장식성	미적 부 적절성	쾌락주의	자기과시	기능장애

IV. 키치 이미지의 디자인 기획

1. 디자인 컨셉 (Design Concept)

최근 현대 패션의 흐름 속에서 복식에 대한 미적 개념은 기존의 개념을 거부한 균형과 조화, 비례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미적 부 적절성의 새로운 미적 가치를 지니며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키치패션은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저급한 취향과 부조화라는 유희적인 파괴를 통해 자유로운 인간 감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대중예술에 반 미학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키치패션에 나타나는 유희적이며 지속적인 키치를 창조적인 패션 미학으로 발전시켜 조형적 특성에 따른 컨셉을 유희성(OPTIMISM), 부조화성(MULTI FORM), 쾌락성(DECADENCE CHIC), 풍자성(NEO NATURALISM), 모조품 활용성(POOR VINTAGE)의 다섯가지 테마로 설정하였으며, 색상과 소재의 경향을 통해 CHEERFUL, GAME, DECADENCE, ENVIRONMENT, GRUNGE의 서브 테마를 제시하여 키치패션의 디자인 스토리를 전개하였다.

2. 이미지 맵(Image Map) 및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본 연구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여성의 자기개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영 타깃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디자인 기획은 인간의 감성과 다양한 형태를 키치적인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OPTIMISM은 꿈과 이상의 세계를 어린 시절에 즐겨왔던 향수와 동화적인 순수한 감정으로 유희적인 쾌락과 천진난만한 웃음을 회상시켜 준다. 색상은 좀더 성숙한 분위기의 파스텔이 미묘한 매력을 풍겨 발산하는 빛에 의해 투명하거나 바랜 듯한 소프트 컬러로 전개되며, 소재는 초경량의 투명한 직조나 파우더리 효과의 여성스러우면서 소프트한 크레이프와 모슬린 등이 전개된다.

MULTI FORM은 시각적인 불일치와 균형체계가 파괴된 모순적인 형태들이 해체주의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생동감으로 무한한 자유를 표현한다. 원색의 브라이트 컬러는 유치하기보다는 오히려 세련되고 강렬하여 미래적인 감각의 다이내믹한 신선함으로 전개되며, 감성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테크니컬한 소재와 플라스틱 촉감의 코팅, 고무소재, 반투명 비닐 등이 조화를 이룬다.

DECADENCE CHIC은 인간내면의 정신세계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자신을 자극하려는 단순한 즐거움으로 성적인 아름다움을 극단적인 노출로 대담하게 표현한다. 색상은 블루와 레드와 낙관주의적 영감으로 젊음의 열정이 축제와 타락의 감정으로 연결되며, 반투명의 인조스킨, 광택 있는 라이크라, 싸구려 느낌의 인조 모피가 저속한 이미지의 키치 효과를 자극한다.

NEO NATURALISM은 다양한 문화에서 느껴지는 키치적인 향수와 인간성 상실에 대한 사회적인 모순과 비판을 미래지향적인 감각으로 표현한다. 색상은 대자



1. OPTIMISM



2. MULTI FORM



3. DECADENCE CHIC



1. CHEERFUL



2. GAME



3. DECADENCE

연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각의 가공되지 않은 내추럴 컬러로 빛에 의해 그라데이션을 보이며, 코튼 거어즈 이중직, 투명한 페비닐, 두꺼운 펠트, 반투명의 스트레치 저지 등이 키치적 향수를 느끼게 한다.

POOR VINTAGE는 자연보호의 의지와 소비사회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빈곤의 미학으로 표현하여 낡고 소박한 휴머니티를 연출한다. 색상은 해체적이며 미완성된 느낌의 낡고 퇴색한 이미지로 조화를 이루며, 얇고 광택 있는 투명비닐과 페이퍼 코팅, 부직포 등이 전개된다(그림 15-16).

V. 결론

키치(Kitsch)는 현대 사회의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향유하는 이중적인 부정으로 가장 보편적인 대중문화의 산물인 동시에 미적 부적절성의 개념이 적용된 대중적인 예술 현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키치의 현상은 사회적인 주체가 인간의 생활공간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환경에 대한 현상이며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통합되는 사회는 키치화 되어 가는 것이다. 즉 키치는



4. NEO NATURALISM



5. POOR VINTAGE

<그림 15> 이미지 맵



4. ENVIRONMENT



5. GRUNGE

<그림 16> 창작 일러스트레이션

인간과 사물이 관계를 맺는 하나의 유형으로 키치와 결합된 인간의 행동양식과 키치에 의해 창조된 미적 조형들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미학으로 부각되고 있는 키치에 대해 그 개념을 살펴보고 현대 예술사조에 표현된 키치의 특성과 조형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국내 키치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해외 키치패션의 유형과 국내 키치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키치 이미지의 창조적인 디자인 기획을 제시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키치패션의 유형은 팝아트 룩, 히피 룩, 펑크 룩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현대패션에서 키치패션이 발생하게된 중요한 실증적 배경이 되었으며 대중적인 하위문화 속에서 표현되어 그들이 의도하는 감정을 키치라는 오브제를 통해 기존의 가치체계와 미적 질서를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 감성을 추구하였다.

둘째, 국내복식에 나타난 키치패션에 대한 연구는 9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유행하였던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을 배경으로 키치패션의 발생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국내 키치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유희성, 부조화성, 쾌락성, 풍자성, 모조품 활용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유희성은 유아적이고 팝아트적인 유머와 즐거움을 유희적인 단순성의 자유로운 감각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경향은 가볍고 즐거운 감정들이 혼합되어 익살스런 파괴와 새로움을 창조하는 유희적인 특성으로 전개된다.

부조화성은 전통적인 개념의 비례와 조화를 의도적인 방법으로 부정하는 새로운 감각의 형태로 복식을 통한 성의 구분이나 기본적인 T. P. O에서 탈피하여 균형을 변화시키고 파괴하여 의복에 대한 미학적 관념을 미적 부 적절성으로 표현한다.

쾌락성은 인간내면의 정신세계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자신을 자극하려는 단순한 즐거움으로 지속적인 키치의 미적 특성을 통해 극단적인 노출로 대담하게 표현한다.

풍자성은 풍자대상의 허위를 폭로하고 비판하기 위해 그 대상을 과장하고 희화시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단순한 유머나 조소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상황, 사회적 모순, 종교적 비판, 이국적 향수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모조품 활용성은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보존과 사라져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재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생활 속의 다양한 모조품들을 키치 오브제로 사용하여 통속적이며 해학적인 이미지로 소박한 휴머니티를 표현한다.

셋째, 이론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키치의 미적 특성을 응용한 창조적인 디자인 기획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기획에 있어 조형적 특성에 따른 컨셉은 OPTIMISM, MULTI FORM, DECADENCE CHIC, NEO NATURALISM, POOR VINTAGE로 전개하였으며, 색상과 소재의 경향은 CHEERFUL, GAME, DECADENCE, ENVIRONMENT, GRUNGE를 서브 테마로 기획하여 이미지 맵과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개성표현은 점차 감성적으로 자기표현을 분명히 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으며 변화하는 인간의 미의식은 좀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것

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키치패션은 자유로운 감성과 욕구충족을 키치라는 미적 부 적절성으로 표현하며, 키치의 다원화된 대중적인 취향과 미적 특성들은 키치패션의 중요한 요소로서 대중패션의 새로운 모더니티 구현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1. 추미경, 현대 복식에서의 키치 유형에 관한 연구, 복식 제30호, 1996, p. 139.
2. 추미경, 1996, p. 142.
3. 김소연, 키치 연구; 사회문화론적 접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김혜정, 현대 패션에 나타난 키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추미경, 현대 복식에서의 키치 유형에 관한 연구, 복식 제30호, 1996.
김정숙, 키치패션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김정자, KITSCH 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7.
4. 이영욱, 키취/ 진실/ 우리문화, 문학과 사회 제 19호, 문학과 지성사, 1992, pp. 1221-1225.
5. Abraham Moles, Psychologic du Kitsch, 엄광현 역, 키치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1995, p. 9.
6. 디자인 공예대사전, 미술공론사, 1990, p. 711.
7. Abraham Moles, 1995, p. 290.
8. Calinescu Matei, 이영욱 외 역, 모더니티의 다섯얼굴, 시각과 언어, 1993, p. 311.
9. Abraham Moles, 1995, p. 42.
10. Sarane Alexandrian, Surrealist Art, Praegeu publishers, 1977, p. 8.
11. 추미경, 현대복식에 표현된 초현실주의와 팝아트의 키치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제34호, 1997,

- p. 98.
12.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p. 21.
 13. Andreas Huyssen, 이창순, 정진성 역,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 '포스트모더니즘의 켜적', 한울아카데미, 1997, p. 301.
 14.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N.Y. Rizzoli, 1997, p. 89.
 15. 현대미술과 대중문화, 월간미술, 1991. 3, p. 51.
 16. 하정현, 잡지광고에 나타난 키치의 사회문화적 의미 연구, 흥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17. 이영욱, 1992, p. 1233.
 18. Abraham Moles, 1995, p. 36.
 19. Calinescu Matei, 1993, p. 294.
 20. Karsten Harries, 오병남 외 역, 현대미술 ; 그 철학적 의미, 서광사, 1988, p. 126.
 21. Umberto Eco, *Apocalittici e Integratii*, 조형준 역, 스누피에게도 철학은 있다, 새물결, 1994, p. 131.
 22. 김정숙, 키치패션의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23. M. D. Troxell and E. Stone, *Fashion Merchandising*, 3rd ed., rev, p. 61.
 24. 노정심,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25. Mcrobbie Angela, *Zoot suit and Second-Hand Dress*, Macmillan, 1989, p. 42.
 26. 엄소희,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27. 엄소희,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대한 연구, 복식 제26호, 1995, p. 102.
 28. 이호정, 패션마케팅 & 패션트렌드 분석, 교학연구사, 1996, p. 165.
 29. 옷 입는 즐거움(fun to wear), 조선일보, 1997. 4. 16.
 30. 하지수, 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31. Grave, J., *Fashion* (London ; Macmillan), 1973, p. 44.
 32. Maddn, Thomas J., and Weinberger, Marc G., "The effect of humor on attention in megazine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11, 3, p. 8.
 33. 이경원, *Fashion Today*, 1995. 7, p. 91.
 34. Evans. C. and Thornton, M., *Women & Fashion*, London, Quartet Book, 1989, p. 2.
 35. 노윤선, 국제복식학회 의상초대전, 1998. 7, p. 147.
 36. 오은환, *Fashion Today*, 1996. 6, p. 25.
 37. Calinescu Matei, 1993, p. 294.
 38. 진태욱, *With*, 1996. 8, p. 184.
 39. 박춘무, *Vogue Korea*, 1997. 12
 40. Calinescu Matei, 1993, p. 287.
 41. 노승은, *Marie Claire Korea*, 1998. 8, p. 148.
 42. 장광호, *Harper's Bazaar Korea*, 1999. 7, p. 214.
 43. 송지오, *Fashion Today*, 1996. 6, p. 119.
 44. 지혜원, 풍자의 형상화 방법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p. 9.